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021. 06. 27. (나해) 제2274호

대구주보



주님의 집
옥산성당에서
6월에 2021
가
Bernard

옥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5,21-4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만촌2동 주임 | 김봉진 안드레아 신부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길잡이요 영감을 주는 아시시의 성인을 모범으로 삼으십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을 지니신 분입니다. 해와 달, 피조물들을 형제, 누이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피조물과의 사랑의 유대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아닌 존중과 경외를 드러냅니다. 교황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내적인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은 모든 신자들이 새기고 행동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하십니다.

신앙은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생태적 위기와 생물종의 멸망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만물을 존재하고 번성토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다 이롭고, 피조물 안에 파멸의 독이 없다.”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번성한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죽음을 들여온 인간만은 교만과 탐욕으로 피조물과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하느님의 피조물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의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아이로와 하혈하는 여인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가를 말해줍니다.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한계에 부딪힌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분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서로가 맺고 있는 사랑의 유대가 병든 피조물의 치유를 청하는 원의를 갖게 하고 우리를 생명이신 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밀치고 있지만,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이, 무관심한 이, 경제적 탐욕자, 불신자와 비슷한 회의론자들, 기술적 해결만을 추종하는 이들은 생명 회복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들만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치유와 구원의 체험을 알아챱니다. 앞으로 우리의 희망을 좌초시키는 비관적인 소식도 만날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 가난하게 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부유하게 하시고 서로의 균열을 치유하여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잠든 이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여 생명 회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생명 회복의 연대에 함께하여, 일상이 지속되는 일상이 되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필문**

이사악 (창세 21,1-7; 22,1-19; 26—27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이사악의 탄생은 하느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가운데 믿음을 간직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요 보증이었습니다. 이사악이란 이름은 하느님께서 주신 '웃음'(창세 21,6)이란 의미인데요, 정작 그의 삶은 웃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손에 짐승처럼 도살되어 제물이 될 뻔한 아들이요, 망나니 큰아들과 사기꾼 작은아들을 둔 '비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혹자는 스펙터클하고 감동적인 일화들로 가득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이야기에 비해, 이사악 이야기가 분량도 적고 내용도 너무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다른 두 성조의 이야기에 낀 '조연' 같다 할까요. 그렇지만, 이사악은 그들만 못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달리, 시련이 닥쳐도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하느님께 바치려던 유일한 성조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조상 이사악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무척이나 닮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악과 예수님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받은 유일한 아들이었지요. 이사악은 믿었던 아들에게 기만당했고(창세 27,1-29),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이사악처럼(22,6-8),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에 오르셨지요. 이사악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고(25,21), 예수님은 구원을 잉태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던 이들을 위해서도 말이지요. 이사악은 아버지 손에 묶여 장작 위에 올려졌어도 저항하지 않았고(22,9),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성부께 오롯이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느님께 순명했던 모리아 산은 후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고(2역대 3,1),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수난과 죽음을 통해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은총과 구원의 성전 그 자체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던 순진한 물음이 결국 제 자신이 장작 위에 얹어지는 참담한 상황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던 이사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듯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야말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여준 참 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사악을 두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산 성조라 그 누가 평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도 하느님 보시기엔 결코 초라한 하루가 아님을, 나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무게를 지니는 하루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매일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된 우리

대구 황금본당 | 강명숙 세실리아

물밀 듯이 코로나가 스며들었다. 온 세상이 열병처럼 들끓었다. 날마다 더해지는 숫자는 막막하기만 했다. 꽃이 피고 뜨겁던 여름이 지나 잠잠해질 때쯤 친구를 만났다. 자주 볼 수 없었기에 성경 통독을하기로 했다.

매일 세 페이지씩 읽으면 일 년쯤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 수 있는 지인들을 연락하니 다섯 명이 되었다. 매일 정해진 장과 절을 공지하면 각자 읽고 음성녹음을 하여 단체방에 올리기로 했다.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읽었다. 눈으로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의 소리였다. 명료하게 들려왔다. 그렇게 하루하루 읽으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는 하느님의 소리가 가슴에 가득히 들어왔다. 힘과 용기가 배로 생긴 시간이다. 은혜가 참만해지니 주위에 권하여 지금은 열두 명이다. 멀리 이국땅에 있는 자매도 함께한다. 타국에서 불안에 떨었을 마음도 추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직장에 다니는 자매는 매일 못하면 건너뛰어서 읽으라고 해도 자신과의 약속이라며 끝까지 읽어 올려준다. 모두가 말씀에 푹 빠져 버렸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함께한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의무감에서 하다 보니 부담스러웠다. 일 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줄면서 볼 때도 있고 며칠씩 밀쳐놔다가 읽는 불편한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다. 묵상이 잘 될 리가 없었고 말씀은 흐린 기억 속에서 맴돌다 흩어져 버렸다. 이제는 열두 명의 목소리가 한곳에 자리한다. 시간이 날 때는 다른 색깔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같은 말씀인데도 낭랑한 톤으로 정신을 또렷하게도 하고 낮은 소리로 마음을 편하게도 한다. 잠자기 전에는 마침 기도로 말씀을 듣는다. 음성 녹음을 하여 공유하니 풍성한 말씀 잔치가 되었다.

2020년 11월에 시작하여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예레미야서가 끝나가고 있다.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인 녹음이 신약을 마치면 나만의 성경이 된다. 언제 어디서라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하나의 선물이다.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꽃 피게 하셨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를 새기며 끝까지 완독하기를 기도한다. **필로**

※ 본 내용은 2021년 대구주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중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중철(柳重哲) 요한은 1779년 전주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801년에 순교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부친이고, 이순이 루갈다는 그의 아내이며, 유문석 요한은 그의 동생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 부친 유항검이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면서부터 그의 집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요한은 일찍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요한은 16세가 되던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초남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첫 영성체를 하였고 ‘동정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그로부터 2년 뒤 주문모 신부는 한양에 살던 이순이 루갈다로부터 동정을 지키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부는 전주에 사는 요한을 생각하고는 둘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그 결과 1797년 10월 요한과 루갈다의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음해 9월 요한은 아내 루갈다와 함께 부모님 앞에서 동정 서약을 하고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후 유중철 요한은 동정 서약을 어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루갈다와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고, 함께 순교의 길로 나가자고 굳게 다짐하였다. 그러다가 1801년 봄 신유박해로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목에 칼을 쓰고 있어야만 하였으며, 옥중의 고통은 그에게 진정한 형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보존하였다.



유중철 요한
(1779~1801년)

9월 중순에는 요한의 아내 루갈다를 비롯하여 동생과 다른 가족들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20여 일 후 포졸들은 유문석을 가족들에게서 떼어내 형인 유중철 요한에게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관장의 명에 따라 그 둘을 교수형에 처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11월 14일(음력 10월 9일)로 그의 나이 22세였다. 요한이 순교한 뒤, 옥중에 있던 아내 루갈다는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마침내 편지 한 장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의 옷 안에서 자기 누이(즉 아내 루갈다)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21(토)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금은 백신 비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 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14.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⑤

일부 국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경제적 이유, 일이나 학업 ...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념의 영향, 다른 부부의 실패를 보며 피하려는 바람,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지는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 이익, 사랑에 대한 순전히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개념,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저 제도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혼인을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언어와 동기와 증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헌신적이며 사랑하고 심지어 과감하기까지 한 젊은이들의 자질에 호소하며 젊은이들이 열정과 용기를 내어 혼인이라는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40화)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회칙 읽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24호 정답

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즈뵘에게 문의하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름 2. ① 3. 여호야다 사제 4. ▶남: 여호람(8), 아하즈야(1), 아탈야(7), 요아스(40) ▶북: 아하즈야(2), 요람(12), 예후(28), 여호아하즈(17), 여호아스(16)

두려워 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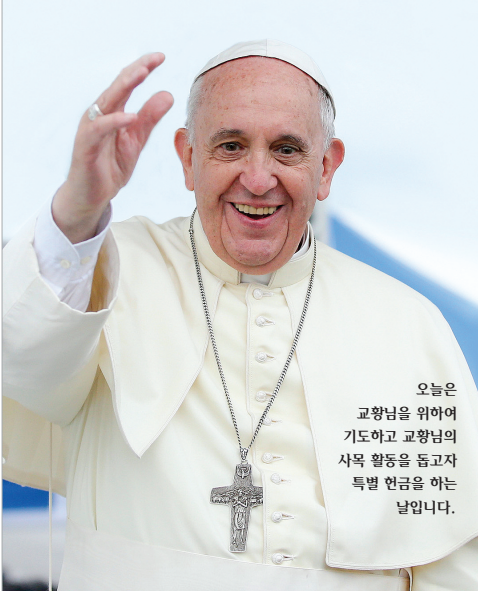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28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3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8일(월) 11:00 봉곡성당	-	-



2021년 6월 27일

교황주일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대륙협의회
CATHOLIC EUROPE CONFERENCE OF BISHOPS

창작성가 공모 ~ 9.30.

총상금 2천만원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공모부문 :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1명) 500만 원 / 최우수상(2명)
300만 원 / 우수상(2명) 200만 원 /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www.daegu-archdiocese.or.kr)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107주년 기념 _故 박형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기증유물 특별전

신부님의 선물展

일시 : 2021. 5. 14(금) ~ 2022. 2. 28(월) / 장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김조자 기획전시실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시각장애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언(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일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7.4(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korvocation@columban.or.kr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2021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6.28(월)~7.7(수)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주일 성령묵상회(3주 과정)

일시: 7.11~25 매주 일 9:30~18: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비용: 12만원
문의: (010)9045-019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7차: 7.23(금)~25(일)
장소: 한티파정지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일시: 9.3(금)~12.5(일)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영화피정: 7.3(매월 첫째 주 토) 14:00
상설고해소: 7.6(매주 화) 14:00~15:00
온라인독서모임: 나자렛예수1권
네이버밴드: 7.5(월)~24(토)
문의: (010)6681-5185

그레고리오성가 강좌(7기) 모집

개강: 7.4(일) 14:00
장소: 공평동 톡뽀베네딕도 베네센터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마감: 7.1(목)
문의(필수): (010)2805-8504

수지에니어그램 모집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7.10(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대덕성당 반주자(유료) 모집

문의: 626-3138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채용 | 안내

루도비코집 생활지도원 채용

문의: 802-2258
<https://cafe.naver.com/ludovicoh>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바른 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 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특화진료
· 정형외과
· 심장내과
· 건강검진
· 고양이특화
·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성구 감삼동 280-5 (미마로 앞길 옆 뒷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한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목, 허리, 어깨, 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영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24시간 요로검역
비엔 비뇨의학과
비뇨과
대표원장 | 전문의 | 이 윤 형 (요셉)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